

# 전남 건설공사 67% 타지업체 싹쓸이

## 작년 8조6천억 중 2조8천억 지역업체 몫 광주 업체 신규수주 전년비 반토막 고전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공사 물량 중 3분의2 이상을 타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종합건설업 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공사규모(기성액)는 총 8조6054억원으로, 이 중 전남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액은 전체 물량의 33.3%인 2조8656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66.7%인 5조7398억원의 공사는 타지역 건설사가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업체가 전남에서 2조3915억원 규모의 공사를 실시해 27.8%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1조7163억원(19.9%), 경기 5442억원(6.3%), 경남 3323억원(3.9%), 인천 2970억원(3.5%), 광주 1369억원(1.6%), 충남 1322억원(1.5%), 전북 533억원(0.6%) 순이었다. 이처럼 타지역 업체에 텃밭을 내주면서 기성실적이 크게 떨어졌다. 전남지역 건설사의 지난해 기성실적은 7조5711억원으로, 2009년(8조

2121억원)보다 7.8%인 6410억원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업체수도 2009년 994개사에서 981개사로 13개사가 줄었다. 업체당 평균 기성실적은 77억2000만원이었다. 전남지역 건설사들은 텃밭인 전남에서 37.9%의 건설실적을 보이는데 그쳤다. 경기 15.1%, 서울 9.8% 등 타지역에서 공사를 더 많이 진행했다. 지난해 신규 수주도 크게 감소했다. 2009년 9조3326억원이었던 계약실적은 지난해 34.6% 감소해 6조1034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공사물량이 줄면서 지역공사 비중이 높아졌다. 전체 기성액의 37.9%였던 지역공사 비중은 계약액에서는 48.5%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건설업체도 고전했다. 지

난해 광주업체의 기성실적은 1조1496억원으로 전년(1조2589억원)보다 8.7% 감소했다. 광주 업체는 41.7%를 지역에서 공사했다. 기성실적의 14.8%는 인천에서, 11.9%는 전남, 10.8%는 경기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신규 수주도 반토막 났다. 2009년 1조8088억원을 기록했던 계약액은 지난해 9233억원에 그쳐 49% 급감했다. 이에 따라 업체 당 평균 계약실적은 2009년 109억원에서 지난해 48억9000만원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정부의 건설예산이 쏠리면서 중소규모 공사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물량이 줄면서 지역 업체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디젤 컨셉 시계 '정글' 출시** (주)광주신세계 수입 시계 브랜드 '디젤'이 '정글'을 컨셉으로 한 신상품을 선보였다. 디젤은 시계에 다양한 포인트와 패션을 줌과 동시에 재미를 선사하는 마인드를 가진 패션 리더들을 위한 브랜드다. <광주신세계 제공>

#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수용못해”

## 이마트, 북구청 상대 잇따라 소송...시민대책위 “철회하라” 비난

이마트가 주민감사청구 결과 매곡동 이마트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이마트가 북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25일 대규모 집회 개최 등 특권층 반란 처분 취소 소송을 낸데 이어 이달 2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이마트가 불법적인 건축 설계와 허가에 대해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북구청의 등록 반려 결과와 광주시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지역사회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의정부역사 입점 계획은 물론

행정심판도 철회해 경기도민들에게 배수령을 받았던 이마트가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입점을 철회하라는 광주시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마트가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개점을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마트 측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를 받은 STS도시개발과 함께 북구청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매곡동의 경우 당초 S업체가 인허가 받은 걸 STS도시개발이 인수해서 진행하고, 이마트로 넘어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가 입점을 추진했던 광주 북구 매곡동의 대형 마트 부지는 당초 한 개발업체가 1년여 행정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받고 난 후 이마트로 넘겨졌으나 이 과정에서 인근 학교와 중소상인 반발, 우회 입점 논란 등 반발과 갈등이 빚어졌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가 용도지역과 맞지 않고 건물용과 용적률을 속이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북구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고 북구는 지난 8월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ℓ 당 100원 ↓ ‘알뜰주유소’ 뜬다

## 2015년까지 1300개 공급 석유공사·농협 입찰공고

정부는 정유사 중심의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다소 낮은 ‘알뜰주유소’를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 가량인 1300개까지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많게는 휘발유 기준 ℓ 당 100원 안팎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가격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식경제부는 3일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사4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많게는 휘발유 기준 ℓ 당 100원 안팎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가격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식경제부는 3일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사4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농협은 이날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중 공급자를 정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미 대량 구매를 통해 농협 NH주유소 300여개를 알뜰주유소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석유공사가 여기에 새롭게 가세하는 셈이다. 해당 주유소는 자가용 주유소 협의회 소속 50곳과 도로공사 임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50곳이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 공급은 다음달 개시되며, 소비자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 숫자는 NH주유소 300여곳을 포함해 1년 내 50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적이 없는 자가용 주유소를 우선으로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유소 사업자를 모집해 공동 구매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는 이런 자가용 물량 확보에 더해 인건비 절약을 위한 셀프화와 사은품 배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일단 자가용 주유소 협의

회에 가입한 50여곳, 알뜰주유소로 간주되는 농협 NH주유소 300여곳 외에 아직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농협주유소 200여곳이 알뜰주유소로 전환되도록 이룰 방침이다. 자가용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650여개 있다. 일반 주유소에 비해 ℓ 당 32원 싸다. 이 가운데 정부는 1년 안에 50개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600개를 알뜰주유소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부 에너지 기업이 올해말 서민 대상으로 소외지역에서 만들려는 사회적 공헌형 알뜰주유소도 연내 1~2곳을 시작으로 향후 10곳 안팎으로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 농협 광주본부·동신대 한방병원 한방진료 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와 동신대 부속 한방병원은 3일 평동농협을 시작으로 16일까지 고령농협인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대상은 의료혜택이 적은 농촌지역의 고령 농협인과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200여명이다. 이번 무료 한방진료는 동신대 부속

한방병원 의료진 10여명이 참여해 진맥을 비롯해 침, 부항,혈당검사, 약제 처방 등을 제공한다. 조영조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무료 한방진료가 힘든 농사일로 허리와 무릎관절 이상 등 고질적인 ‘농부병’을 앓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수출입은행, 강소기업 초청 ‘히든챔피언 포럼’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3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호남지역 대표 강소기업 9개사를 초청해 ‘히든챔피언 포럼’을 개최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시작해 수출 3억달러 이상인 세계시장 지배력이 있는 글로벌 중견

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뉴모텍, 디에스알제강, 무등, 화천기공, 세화아일랜드, 하남전기, 한국차량공업 등 7개사가 선정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무등 김우연 대표이사가 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등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세대란’에 은행 전세대출도 급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전세대란’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2년새 급증했다. 게다가 전세자금대출마저 뛰어올라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 2년새 5배 ↑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 5개 시중은행의 자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현재 4조3142억원으로 전월말보다 약 6.2% (2501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인 0.6%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세 대출 잔액은 2009년 말 8765억원, 2010년말 1조9610억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말과 지난해 말을 비교하면 5배나 늘어난 셈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실적

은 11만4832건, 3조66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9582건, 2조6571억원보다 각각 15%, 38% 급증했다. <금리마저 올라 서민들 ‘한숨’ = 전세금뿐 아니라 대출금리마저 올라 서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A은행의 자체 전세론은 지난해 1월 4.06~5.56%에 고시됐으나 지난 달 말 금리는 4.55~6.05%였다. 산술적으로 5000만원의 추가 전세금을 대출받으려면 가정 경우 1년 이자부담은 25만원이 늘어난다. 서민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는 액수다. 서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사실은 연체율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을 포함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9년 말 0.48%에서 지난 9월 말 0.71%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 금호그룹 현혈증 1855장 연세대·서울대병원 기증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올해 임직원 현혈운동을 통해 모은 증서 1855장을 연세대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현혈증서 1000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69.96 (-28.05)
코스닥지수	487.91 (-5.58)
금리 (국고채 3년)	3.43% (-0.04)
원·달러 환율	1,129.90원 (+8.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2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경·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9급 검찰직** **원·소장직(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평문/명예직**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